

## ■ 화제의 뉴스 ■

**분양 시장 살아나자 건설사들 땅 구하기 전쟁... “경쟁률 높은 곳 입지 좋아”**

분양 시장이 살아나면서 건설사들이 땅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입지 조건이 좋은 곳에는 토지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을 기록했습니다.

주택시장 전문가들은 “청약 경쟁률이 높다면 입지 조건이 좋다는 뜻”이라며 “주택 선택 시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 **분양 시장 살아나자 건설사들 ‘땅 구하기 전쟁’**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사·시행사들은 ‘땅 구하기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분양 경기가 좋다 보니 아파트를 짓기 위해 토지 청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구리 갈매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C1블록 입찰에는 대형 건설사, 시행사 등 120여 곳이 몰렸습니다. 토지값이 1,254억 원으로 높았지만, 지구 내 3필지뿐인 민영 아파트 용지라는 희소성 때문에 인기를 끌었습니다. 경북도시개발공사가 2월 공급한 김천혁신도시 공동주택용지 3-1블록은 38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주상복합용지도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LH가 공급한 광명역세권 주상복합용지는 4년여 만에 지난 달 17일 1,015억 원에 매각됐으며, 화성 동탄2신도시 C-15블록도 18일 1,234억 원에 팔렸습니다.

경쟁력을 갖춘 중건사들이 토지 매입 경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H건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3개 공동주택 용지를 사들였습니다. 수원 호매실, 오산

세교, 광명역세권, 의정부 민락, 아산탕정, 대구테크노폴리스, 고양원흥 등 토지를 확보했습니다. 약 1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또 J건설은 세종시, 부영은 동탄2 신도시, 전남혁신도시 등에서 토지를 확보했습니다. B건설은 동탄2 신도시, 세종시 등에서 적극적으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W건설은 강릉유천지구, 평택 소사벌,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등 3개 공공택지에서 아파트 용지를 사들였습니다.

#### ◆ “토지 경쟁률 높은 곳 입지 조건 좋은 곳”

주택시장 전문가들은 공동주택용지 토지 청약 경쟁률이 높은 곳은 그만큼 사업성이 우수한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주택시장 전문가는 “주택용지가 잘 팔리는 곳은 개발 및 생활환경 등에서 발전 가능성이 큰 곳”이라며 “연내 주택 청약을 고려한다면 이런 지역의 신규 분양에 관심을 가질만 하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특히 토지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곳을 중심으로 분양 물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관련 기사]

- [조선비즈 - 분양 시장 살아나자 건설사들 땅 구하기 전쟁... “경쟁률 높은 곳 입지 좋아”\(2014. 4. 10.\)](#)